DBpia

문수보살 신앙과 영험설화의 전승양상

A Study on the Worship for Manjusri and the Tradiional Miracle Folktales

저자 (Authors)
김용덕
Kim Yong-duk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54, 2011.11, 69-98(30 pages)
The Korean Folklore 54, 2011.11, 69-98(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86495

APA Style
김용덕 (2011). 문수보살 신앙과 영험설화의 전승양상. 한국민속학, 54, 69-9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1 11: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民俗學 54(2011.11, 69~98쪽)

문수보살 신앙과 영험설화의 전승양상

김용덕*

<목 차>

Ⅰ. 서론
Ⅱ. 문수보살 신앙의 기원과 성격
Ⅲ. 문수보살 신앙의 전래와 전승
Ⅳ. 문수보살 영험 도량과 영험설화
Ⅴ.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문수보살(Mañjuśrī) 신앙의 성격을 이해하고 문수보살 신앙이 전래하여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문수보살 영험도량과 영험설화를 통해 고찰하기 위해 씌어졌다.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와 현장 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삼았다. 분석의 틀은 먼저 경전을 통해서 문수보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문수보살은 석가의 교화를 돕고자 일시 보살의 자리를 보인 보처보살로서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또는 '완전한 지혜'라는 뜻에서 반야를 인격화한 상징적 보살이다.

문수보살 신앙의 유입은 신라 때 중국을 통해서 자장율사에 의해 유입되었다. 문수신앙의 전승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태백산맥을 따라서 전승하고 있는 설화나 지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수신앙은 우리나라에도 오대산 신앙을 낳았고, 고려말 공민왕 때 문수회가 조직되는 등 후대에까지 문수신앙은 전승되었다. 문수보살 신앙의 전승 현황은

* 한양대학교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문수도량과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된다.

문수보살 영험설화를 통해서 문수보살 신앙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문수보살 영험설화의 내용은 수행승으로서 본연의 자리를 잃지 말라는 경책과 당시 귀족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다. 영험담에서 문수보살은 어린 동자나 노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영험담의 구조는 trickster의 구조다. 이 구조의 특징은 서사구조에서 주체자를 일깨워 주고 주체자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영험설화에서 문수보살이 동자나 스님 또는 초라한 행색으로 현신하는 형식은 중국의 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중국의 불경과 영험록을 접한 승려들에 의해 이식되고 변이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핵심어〉 문수보살신앙, 문수보살영험설화, 자장율사, 트릭스터구조, 문수도량

Ⅰ. 서론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협시불로서 삼존불을 모신 법당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음・미륵・지장신앙 만큼 독자적으로 민간에서 신앙되지는 못했다. 관음전・미륵전・지장전처럼 문수전이 독립된 법당으로 있는 사찰이 적은 것도 이러한 경향을 말해 준다. 문수신앙에 대한 연구도 다른 신앙에 비하면 그 업적이 많지 못하다. 대표적 업적으로는 정병조의 학위 논문인 『문수보살』의 연구가 있다.[1] 이 연구는 보살사상의 일반적인 교학체계와 사상적 특징을 연구한 불교학 논문이며, 문수신앙의 전개에서 인도・중국・한국의 문수신앙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그 밖의 연구로는 중국의 문수신앙에 대한 연구이거나 문수보살에 대한 미술과 역사학적 연구에 치우쳐 있고 민속학적 접근은 없다.[2]

1)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2) 이정수, 「불공삼장의 문수신앙에 관한 연구」(동국대석사논문, 1994); 장준구, 「문수신앙과 돈황의 문수보살도 연구」, 『인문과학연구』 12(대구카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한강지, 「오대산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연구」(동국대석사논문, 2006); 염중섭, 「오대산사적기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따라서 이 글은 앞선 연구들에 힘입어 문수보살 신앙이 전래하여 전승되고 있는 현상을 영험도량과 영험설화를 통해 고찰하기 위해 씌어졌다.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에서 얻은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분석의 틀은 먼저 경전을 통해서 문수보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문수보살은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또는 '완전한 지혜'라는 뜻에서 반야를 인격화한 화현 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석가의 교화를 돕고자 일시 보살의 자리를 보인 보처보살로서 현학적이고 이지적인 보살이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문수보살 신앙은 신라 때 중국을 통해서 자장율사에 의해 유입되었다. 문수보살 신앙의 전승은 『삼국유사』의 여러 기사와 태백산맥을 따라서 전승하고 있는 오대산 신앙과 문수영험 도량의 설화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수보살 신앙은 우리나라에 오대산 신앙을 낳았고, 고려 말 공민왕 때 문수회가 조직되는 등 왕실의 후원을 입어 후대에까지 전승되는 기틀을 다진 것으로 파악된다.

문수보살 영험 도량에 얽힌 연기설화와 영험설화는 문수보살 신앙의 이해에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기설화와 영험설화의 내용과 구조 분석을 통해 문수신앙이 전승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수보살 영험설화는 관음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등 다른 보살들의 영험설화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보살들의 영험설화는 보살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신하기도 하지마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또 기도를 즉석에서 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고 즉석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례보다도 어리석음이나 세속적 욕망을 깨우쳐 주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는 방편으로 문수보살 영험설화는 문수보살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현신하는 trickster 구조를 갖는다. 보살이 여러 형상으로

제1조사전의 수정인식고찰」, 『국학연구』 18(한국국학진흥원, 2011); 염중섭, 「三國遺事 五臺山 관련기록의 내용분석과 의미」, 『한국사학연구』 101(한국사학회, 2011).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현신하는 원리는 三身佛(法身佛 報身佛 化身佛)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원리를 경전에서 찾아보고 문수보살이 수행승이나 초라한 행색의 노인 또는 어린 동자로 화신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보려 한다.

끝으로 중국설화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문수보살 신앙의 유입이 중국을 통해서 전래 되었고, 유학승들이 중국을 오가며 문수 신앙에 접했을 것이므로 중국 설화가 이식 변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설화를 분석하면 우리 설화가 어떤 점에서 닮아 있고 영향을 받았는지 문화접변을 통한 문화변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수보살 신앙의 기원과 성격

문수보살을 가리키는 '文殊師利'는 산스크리트어 Maňjuśri를 한자로 음역한 말이다. 文殊尸利・蔓殊室利・滿殊室利 라고도 표기한다. 번역하여 妙德・妙首・普首・濡首・敬首・妙吉祥이라고 한다. '문수사리'에서 '문수'는 妙(신묘하다, 불가사의하다, 훌륭하다), '사리'는 頭(으뜸) 德(크다) 吉祥(상서로움)의 뜻이다. 문수보살은 불성을 밝게 깨달아 덕이 원만하고 다함이 없으므로 '묘덕'이라고 부른다.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또는 '완전한 지혜'라는 뜻에서 이 보살은 반야를 인격화하여 상징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放鉢經≫에서 문수보살을 '불도의 부모'라고 하였다. 문수가 불모라는 뜻은 문수가 반야바라밀과 동격이고, 반야보살의 표상이 곧 문수보살이라는 말이다. 문수보살은 과거불로서 『문수사리소설불사의삼매경』에서 석가 전생의 구도할 때의 모습을 상징하며, 또한 미래의 붓다로 ≪문수사리행경≫에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들 경전에서 문수보살은 전형적인 보살로서 제불보살의 智母라는 성격을 갖는다.[3)]

문수보살은 지혜를 완전히 갖춘 보살로서 석가모니불의 지덕과 체덕을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맡아서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기 위해 일시적 방편으로 출현한 보살이므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난다. 문수보살이 사자 또는 공작을 타는 것은 그의 지혜가 용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수보살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은 일체중생의 번뇌를 끊는다는 뜻이고, 왼손에 청련화를 쥐고 있는 형상은 일체 여래의 지혜와 無相의 智德을 맡아서 제법에 물들지 아니하여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없다는 뜻이다. 머리에 상투를 맺고 있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며, 다섯 개의 상투는 대일여래의 五智를 표현한 것이다. 문수보살에게는 使者인 다섯 동자가 있다. <화엄경소>에는 "문수께서 다섯 사자를 부르시니 다섯 사자(髻說尼・優婆髻說尼・質多羅・地慧・請召)와 묘길상이 좌우 차례로 늘어서 모두 문수의 한 지혜가 된다. 이 사자들은 또한 모두 美髮로 유명하다."라 하였다. 다섯 동자는 문수의 분신으로서 모두가 문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수보살은 상투를 가진 동자형으로 조성되거나 설화에서도 동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문수보살이 출현하는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문수신앙이 왜 성행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짐작케 해준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동방에 처소가 있으니 청량산이라 한다. 예부터 지금까지 모든 보살들이 여기에 머물러 계셨으며, 현재는 문수보살이 그 권속인 모든 보살 중생들 1만 명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설한다."하였다. ≪문수사리법보장다라니경≫에는 "이때 세존이 금강밀적주 보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 섬부주 동북방에 대진나국이 있고 그 안에 五頂山이 있어 문수사리 동자가 머물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설법할 것이다."하였다. 『적조음소문경』에도 "동방으로 1만 불국토를 가면 보주 세계가 있고 보상여래불이 正遍知를 공양하였다. 현재는 문수사리가 제불보살마하살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다."하였다.

3) 정병조, 앞의 논문, 95쪽.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이러한 문수보살의 성격과 경전을 바탕으로 조상들은 경상도 청량산, 강원도 오대산, 울진의 문수산, 금강산 문수봉 등 이 땅에 문수보살이 머무른다는 문수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미산 남쪽의 남섬부주며 오정산은 다섯 봉우리의 산으로 오대산과 같은 뜻이다.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이 산에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 경전의 내용대로 우리나라 오대산 일대에는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계신다고 믿었다.[4)]

『문수보살반열반경』에 보면 문수보살은 신통력을 보이는 보살이기도 하다.

>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뵙고 절하는데, 무릎 위마다 다섯 송이의 연꽃이 피었다. 부처님 앞에서 합장을 하니, 또 열손가락 끝과 손바닥에서는 천개의 금빛 연꽃이 피었다. 그것을 부처님 위에 뿌리니 칠보 큰 일산이 되어 여러 개의 당기와 번기가 매달리게 되었다. … 문수보살은 일찍이 백 천 부처님을 가까이 섬기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불사를 지어 시방세계에 신통변화가 자재하며, 그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다.

문수보살의 무릎에 연꽃이 피어나는 신통력은 우리의 무속신화 <창세가>에서 석가와 미륵이 무릎에 연꽃피우기를 경쟁하는 화소로 나타난다. 문수보살은 태어날 때도 영험과 이적을 보이는데 집안이 온통 연꽃으로 변하고, 어머니의 옆구리고 태어났으며, 몸이 자금색이었다. 태어나자마자 하늘 동자처럼 말을 잘하고, 칠보로 된 일산이 그 위를 덮었다. 선인을 찾아가 출가법을 배워 首楞嚴 삼매에 머물렀다. 온몸의 털구멍에서 금색광명을 내고 비구의 상을 지어 공중을 날아다니는 등 한량없는 신통과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든지 문수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像

4) 한국불교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보련각, 1982); 홍사성, 『불교상식백과』(불교시대사, 1999); 김용덕, 『우리불교우리문화』(밀알, 2005); 『문수기도집』(정우서적, 2010). http://www.buddhistnews.net.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명호를 부르기만 하여도 12억겁 생사의 죄업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문수가 바라문집에 태어난 실재 인물인 듯이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대승불교 운동 초기에 반야부의 경전이 성립되던 때 상징적인 지혜의 화신으로서 형상화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신통자재한 문수보살의 성격은 문수신앙의 형성에 작용하여 설화에서도 문수보살은 신통력을 지닌 모습을 보인다.

이상 여러 경전을 통해서 문수보살 신앙의 기원과 문수보살의 위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 문수보살 신앙이 어떻게 유입하여 정착하고 오늘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전승해 오는지 문헌기록, 문수기도 도량, 문수보살 영험설화 등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고 문수신앙은 타력신앙이기보다 자력신앙의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문수신앙은 관음신앙이나 미타신앙과 달리 기복적 측면보다 이지적 현학적 측면이 강조된다. 문수보살의 가피력에는 관세음보살이나 미타불처럼 중생들의 보편적 염원을 담은 내용이 없고 수행자의 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문수보살과 관련된 설화의 대부분이 승려의 수행과 관련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Ⅲ. 문수보살 신앙의 전래와 전승

문헌기록에 따르면 문수신앙은 신라 27대 선덕여왕 기간에 자장율사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되어있다.

> 산중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산을 眞聖의 住處라고 한 것은 자장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

이 기록에는 자장법사가 중국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금란가사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부처님 진신 사리를 얻어 귀국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우리의 오대산은 중국의 오대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문수사리법보장다라니경』에서 말한 다섯 봉우리가 있는 五頂山에 문수보살이 머문다는 중국의 문수신앙이 그대로 자장에 의해서 신라로 전해진 것이다. 자장법사가 문수보살을 만나 부처가 쓰던 가사・바리때・진신사리를 받아온 곳은 『삼국유사』 <황룡사구층탑>조와 <자장정률>조에 중국의 오대산・태화지・청량산 등으로 나타난다.

경산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울주에 문수산이 있는데 이 산의 다른 이름이 청량산이다. 읍지에는 "신라 때 문수보살이 산세가 청량하고 아름다워 여기에 와서 살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문수보살과 관련이 깊은 산이며, 이 산에 문수사가 있고 문수산에서 발원한 물은 태화강에 이르러 동해로 흘러든다. 중국과 한국의 태화지와 태화강, 청량산과 문수산(청량산)은 서로 비견되며 문수신앙이 뿌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5)]

자장은 중국 오대산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율을 세워 승려의 지계와 범계를 알게 하였다. 통도사에는 지금도 자장이 가져온 금란가사가 보존되어 있고, 진신 사리는 금강계단 사리탑에 안치되어 있다. 『동사열전』에는 문수보살이 자장율사에게 가사 1벌, 사리100과, 부처님 머리뼈, 손 발가락뼈, 패엽경 등을 주며, "영취산 아래 독룡이 사는 연못이 있으니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고 봉안하라. 부처님의 진리가 오래 머물며 하늘의 용이 그곳을 옹호할 것이다."라고 일어주었다 한다.[6)] 다른 전설에는 자장법사가 태화지에서 다섯 과의 진신 사리를 받아와 5대 적멸보궁(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정암사, 법흥사)에 봉안했다 한다. 이러한 사적과 울산에 태화사(사지만 남아있다) 문수가가 있고, 산 이름을 청량산이라 하고 강 이름을 태화강이라 부른 것이나, 오대산 또는 문수산 등은 모

5)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김석보, 『울산유사』(소문출판사, 1979).
6) 범해 찬, 김윤세 역, 「자장법사」, 『동사열전』(광제원, 1991).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두 문수신앙을 가져온 중국의 지명을 따서 붙인 이름들이다.

문수신앙은 중국의 오대산 신앙을 낳아 우리의 오대산 신앙으로 전승되고 있다. 오대산 중대는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하여 1만의 문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일 새벽 문수대성이 진여원 지금의 상원에 이르러 36종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라의 보천과 효명태자가 머물며 문수보살을 공양하였고 두 명의 태자 가운데 효명은 왕이 되고 보천은 남아서 文殊岬寺를 지어 밤낮으로 국가를 도울 기도를 하였다는[7] 내용으로 보아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자장은 중국 오대산의 화엄 사상에 의한 문수신앙을 신라에 유입하고 불국토 사상에 결부하여 오대산을 화엄만다라화 해나갔다.[8] 오대산 신앙은 국가에서도 문수신앙을 보호하였다고 보아 신라불교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대산 신앙은 7~8세기에 이르러 금강산 신앙과 함께 정착된다. 오대산 신앙은 불국토설의 집대성이었으며 밀교신앙과도 깊은 연관은 가진다고 해석하기도 한다.[9]

문수신앙은 고려에도 전승되어 공민왕 때 신돈에 의해 '문수회'가 조직되고 왕이 친히 문수법회를 열었다. 신돈의 '문수회'는 문수의 지혜와 대일여래(비로자나불)의 광명을 대중들에게 얻도록 하는 밀교식 법회였다. 공민왕이 나이 30대 중반에 아들이 없어 문수기도를 통해 남자 아기를 순산하자 이듬해(공민왕 15년, 1368) 친히 연복사에서 문수법회를 열었다. 연복사는 이때부터 문수신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고려 말 나옹승려는 송광사에 주석하다가 양주 회암사로 옮겨 1376년 문수법회를 열어 근수와 지혜로써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법명을 크게 떨친[10] 사실로 미루어

7) 『삼국유사』 3, <대만오만진신>,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
8)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만다라』(원광대, 1985), 357~365쪽; 김석보, 『울산유사』(소문출판사, 1979).
9)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159쪽.
10) 김창현, 『신돈과 그의 시대』(푸른역사, 2006), 206~208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문수신앙이 전승되는 양상을 짐작 할 수 있다.

IV. 문수보살 영험 도량과 영험설화

1. 문수보살 영험 도량

문수신앙이 전해지고 있는 현상은 '문수사'나 '문수암'이라는 사찰 이름과 영험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들 사암들이 '문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까닭은 문수보살 영험이 있어서 지어졌다. 한편 삼각산 문수사에서 기도하고 낳아 이름에 '문수'를 넣은 박문수처럼 문수보살 영험설화가 뒤에 생겨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수신앙은 현재까지도 태백산맥을 따라 강원도 오대산과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수영험 도량인 울산의 문수사는 선덕여왕15년(645)에 자장이 창건했다는 설과 원성왕 때(789, 5?~798) 연회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1]

> ① 대사 연회는 영취산에 은거하였는데 보현관행을 닦으며 연못에 연을 심어서 꽃을 피우는데 사계절 시들지 않는 신통력을 보였다.
>
> ② 원성왕이 그 상서롭고 기이함을 듣고 불러 국사를 삼고자 하니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암자를 버리고 떠났다.
>
> ③ 서쪽 고개 언덕 바위를 넘어가는데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 "나라에서 벼슬로써 나를 매어두려고 하므로 피하려 한다."고 대답했다.
>
> ④ 노인이 "여기서 장사할 만한데 왜 수고롭게 멀리 가려고 하는가? 대사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구려."라고 말했다.

11) 울주군, 『내고장의 정기』(1983), 470쪽. 문수사 사찰 안내문에는 연희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⑤ 대사는 노인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는데 이번에는 시냇가에서 한 노파가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⑥ 대사가 “한 늙은이가 나를 너무 업신여겨 불쾌해서 대꾸도 않고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문수대성인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였다.

⑦ 대사가 듣고 놀라 급히 노인에게로 돌아가서 이마를 조아리며 “성자의 말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의 노파는 누구십니까?”하고 물었다. 노인은 “변재천녀 이다.”[12]라고 대답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⑧ 암자로 돌아오니 또 사신이 왕의 칙명을 가지고 왔으므로 이번에는 부름에 응하여 국사를 받았다. 노인을 만난 곳을 문수고개(文殊岾)라 부르고 여인을 만난 곳을 할미고개(阿尼岾)라 부른다.[13]

연회대사가 농부를 처음 만난 자리에 문수암을 짓고, 변재천녀를 만난 곳에 보현암을 지었다고 한다. 영취산(영축산)은 문수산의 동쪽 기슭을 일컫는 산인데 신라 때 영축사를 비롯해 망해사 등이 자리 잡고 있던 영산이다. 이산의 이름은 석가모니가 설법을 펼치던 인도의 영취산에서 따온 이름이며 다 같이 제10 법운지로서 보살이 살던 곳이라 하여 낭지대사와 지통대사 연회국사 등이 은거하여 수도하던 성지로 이름 높은 산이다.[14]

다른 설에는 문수암을 지은 승려가 연회국사가 아니고 자장율사라는 설도 있다. 중국을 다녀온 자장율사가 울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수산의 모습이 너무 깨끗하고 성스러울 뿐 아니라 승려가 중국에 머물렀던 청량산과 너무 닮아 산 이름을 청량산이라 부르고 문수암을 짓고 머물렀다 한다.[15] 울산 태화동에 자장율사가 지었다는 태화사지가 있고, 강 이름을 태

12) 대변공덕천 辯財天 美音天 妙音天 辯才天이라고 도 부르며 노래와 음악을 맡은 여신이다. 걸림이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불법을 유포하며 사람의 수명을 늘이고 원수를 물리치고 재산을 늘려 풍족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13) 『三國遺事』 5, <緣會逃名文殊岾>.

14) 『三國遺事』 5, <朗智乘雲普賢樹>.

1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절이 자리한 문수산은 신라와 고려 때는 영취산(靈鷲山) 또는 청량산(淸凉山)이라고도 하였다.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화강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곳에 처음 자장이 문수보살신앙을 들여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울산에는 또 다른 문수보살 영험설화 <헐수정과 무거동>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 전설은 경순왕에 얽힌 이야기다.

> 신라가 쇠잔해지자 경순왕은 법력과 덕망이 높은 고승을 청하여 국재를 올리고자 전국 사찰에 명을 내려 고승을 추천하라고 명을 내렸다. 추천되는 승려가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린 승려가 나타나 그 승려에게 맡겨서라도 재를 지내려 하였으나 대신들이 반대하였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대신들의 반대로 승려에게 재를 지내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되 누구에게도 국재에 참여했다는 말을 하지마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승려는 "문수보살이 재에 참석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동자로 변하여 사라졌다. 경순왕이 놀라서 말을 몰아 따라갔으나 도저히 잡을 수 없어 '헐 수 없다'고 탄식한 마을을 '헐수정'이라 부른다. 거기서 10리 쯤 더 좇아갔으나 간곳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을을 '無去里'라 부른다. 다시 10리 쯤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곳을 '望回'라 부르고, 문수암 앞 바위에 이르러 문수동자가 청사자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문수보살'을 세 번 부른 곳이라 하여 '三招臺'라 부른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동자가 나타나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싶거든 이곳에 절을 짓고 기도를 하십시오."하여 경순왕이 감격하여 그곳에 절을 지으니 金仙臺다.[16]

전라북도 고창의 청량산 문수사도 문수보살의 영험으로 지어진 절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이절은 자장율사가 신라 선덕왕13년(644, 백제 의자왕 4년)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사 연기 설화에 따르면 자장이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이곳 산세를 보니 중국의 청량산과 똑 같은 느낌을 주어서 석굴(자장굴)에서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그 때 땅속에서 문수보살 석상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꿈에서 본 곳의 땅을 파보니 문수보살 석상이 나와서 절을 짓고 이름을 문수사라 했다한다.[17] 대웅전 뒤쪽 문수

16) 정념, 『문수기도공덕』(민족사, 2002), 51~53쪽.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전에는 이 설화의 배경인 문수보살이라는 석상이 있다. 문수석상은 높이가 2.25m로 상체가 큰 불상이며 좌대와 하반신 일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매몰불이다. 사찰 연기 설화와 문수사라는 절 이름 때문에 문수보살상이라고 하지만 하반신이 매몰되어 있는 석상은 일반적으로 미륵불이 출현하는 용출형의 양상이다.[18] 따라서 백제 때 이 지역에 성행했던 미륵불 신앙과 이 석상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상호 관계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하동 지리산 쌍계사 칠불암도 문수보살 영험이 있는 도량이다. 이 칠불암은 신라 3대 유리왕 22년(45)에 옥보고 선인이 개창하고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성불하여 칠불암이라 이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절에는 담공선사가 설계하여 한번 불을 지피면 50일 동안 큰방이 고루 따뜻한 '亞자방'이라 부르는 유명한 온돌방이 있다. 이 '亞자방'은 참선 승려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선방이다. 이방에 얽힌 설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19]

① 조선 중엽 새로 부임한 하동 군수가 아자방을 구경하겠다며 찾아와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라고 호통 쳤다.

② 문을 열자 승려들은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수에 빠져 졸고 있었다. 군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절에 도인이 많다더니 고작 졸고 있으니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동헌 뜰에 와서 타고 마당을 돌도록 하라. 목마를 타고 돌면 상을 내릴 것이고, 아니면 큰 벌을 내리겠다."

③ 절에서는 대책을 논의 했으나 묘안이 없어 모두 침통해 하고 있었다. 이때 동자승이 나서며 목마를 만들어 주면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④ 동자가 목마를 가지고 군수 앞에 나가서 목마를 타고 동헌 뜰을 한 바퀴 휘돌아서 공중으로 솟아올라 멀리 사라졌다.

⑤ 이후 군수와 육방 관속들은 뉘우치고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고 관민들도 모두 불교를 믿어 화장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17) 주지, 선법스님으로부터의 채록(2011. 8.22).
18) 김용덕, 「미륵불신앙의 현장연구」, 『한국언어문화』 43(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210쪽.
19) 이고운 · 박설산, 『명산고찰따라』(운주사, 1991), 221~223쪽.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이 설화는 유학자들이 불교를 얕잡아 보는 행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포교설화다. 여기 등장하는 동자는 물론 문수보살이다.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문수동자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성숙 인이 아닌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보살의 화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2. 영험설화의 내용과 구조

종교적 영험은 기도 끝에 얻어지는 신앙의 소산이다. 영험의 체험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파되고 세월의 옷을 입어 설화로 만들어져 전승된다. 영험설화는 신앙심을 더 높일 뿐 아니라 또 다른 기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문수보살 영험담은 문수신앙의 전승을 지속시키는 근간이며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의 문수신앙도 문수보살 영험이 있는 도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문수보살 영험담의 내용과 구조분석을 통해 문수신앙과 기도의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문수보살과 관련되는 설화의 내용은 기도와 영험이 바로 연결되는 관음・미륵・지장보살 등의 영험설화들과 달리 잘못된 수행을 꾸짖거나 행동을 경책하는 내용이 많다. 문수보살 설화의 내용이 비판적인 까닭은 문수보살의 성격이 이지적이며 현학적인 지혜 보살이고 보살행의 완결을 보여주는 보살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수보살 설화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수행승에게 본연의 자리를 잃지 말라는 경책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귀족 불교에 대한 비판의 뜻을 담고 있다.

수행승의 본연 자리를 잃지 말라는 설화 가운데 <환우화상 설화>가 있다.[20]

20) 정념, 『문수기도공덕』(민족사, 2002), 36~39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① 금강산에 법력과 덕망이 높은 환우화상이 검소한 생활을 하며 수행하고 있었다.

② 어떤 대감이 화상의 덕망과 검소한 삶을 보고 느낀바 있어서 서울의 집으로 초대했다.

③ 화상이 시주를 바라고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고 거절하였다.

④ 절의 형편이 어려워 여러 승려들이 초대에 응하기를 원했다.

⑤ 대중들의 떠밀림으로 대감 집에 간 환우 화상이 대접을 잘 받게 되었다.

⑥ 그때 벽장문이 열리며 동자가 나타나 수행승의 잘못을 꾸짖었다.

⑦ 화상은 수행자의 모습에서 이탈한 자신이 부끄러워 곧 빈손으로 돌아갔다.

⑧ 시주를 기대하던 대중들이 화상의 말을 통해 문수동자의 경책을 뉘우쳤다.

⑨ 대감이 화상을 잘못 접대해서 돌아갔다고 여겨 해마다 시주를 보냈다.

『삼국유사』(권5) <경흥우성 설화>도 수행승으로서 본분을 잊은 태도를 꾸짖는 내용이다.

① 신라 문무왕 때 경율론 삼장에 통달한 경흥법사가 있었다.

②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신문왕이 경흥법사를 국사로 삼고 삼랑사에 머물게 했다.

③ 경흥법사가 화려하게 꾸민 말을 타고 궁궐로 향하였다.

④ 법사의 행차를 구경하려고 모여든 군중 속에 남루한 차림의 노승이 나타났다.

⑤ 노승의 광주리 속에 마른 고기가 담긴 것을 보고 시종들이 꾸짖었다.

⑥ 노승은 "산고기(말)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다니는 중(경흥)도 있는데 마른 고기를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잘못인가?"라고 대꾸하고 사라졌다.

⑦ 노승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따라갔더니 남산 문수사의 문수보살 상 앞에 주장자가 놓여있고 광주리 속의 마른 고기는 소나무 껍질이었다.

⑧ 경흥법사가 크게 깨달아 이후로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이 두 설화는 수도승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경책하는 의미를 갖는다. 앞의 설화는 수행승이 풍족한 가운데 수행하는 태도를 경책하는 내용이다. 뒤의 설화는 문수사의 연회대사 설화와 함께 수행승으로서 자칫 빠지기 쉬운 세속의 명예와 욕망에 젖지 말라는 경책이다.

다음으로 귀족적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설화가 있다. 앞에서 본 <경흥우성>설화는 수행승의 자세를 경책하는 한편 귀족 불교에 대한 경책의 의미도 갖는다. <자장율사>와 관련된 설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만년에 경주를 떠나 강릉군(지금 명주)에 수다사를 창건하고 살고 있는데 북대에서 본 모습의 이승이 꿈에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놀라 깨어 일찍 송정에 이르니 과연 문수가 감응하여 왔다. 불법의 요체를 물으니 "태백산 갈반지에서 다시 만나자."하고 숨어 보이지 않았다. 자장이 태백산에 가서 칡넝쿨이 얽혀 있는 갈반지를 찾을 때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자에게 이르기를, "이곳이 갈반지이다."라 하고 석남원(지금 정선 정암사) 을 세우고 성인이 강림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한 늙은 거사가 남루한 차림으로 칡으로 얽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넣어 가지고 와서 시자에게 말하기를 "자장을 만나려 왔다."고 하였다. 시자가 "스승을 받든 이래로 우리 스승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허튼말을 하느냐?" 하고 물었다. 거사가 "다만 네 스승에게 가서 알리기만 하라."고 하여 들어가 아뢰니, 자장이 깨닫지 못하고 미치광이라고 의심하였다. 시자가 나가서 거사를 쫓았다. 거사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알아보리오."하면서 삼태기를 거꾸로 터니 죽은 개가 변하여 獅子寶座가 되어 거기에 올라앉아 빛을 내고 가버렸다. 자장이 듣고 그제야 위의를 갖추고 빛을 찾아 남쪽 고개로 올라갔으나 이미 사라져서 만나지 못하고 마침내 쓰러져 죽으니 화장하여 뼈를 석혈 가운데 안치하였다.
>
> 『삼국유사』 <자장정률>

노인이 자장을 찾아갔다가 면박을 당하고 물러나 죽은 강아지를 사자좌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로 바꾸어 타고 가는 행동은 지혜와 용맹함을 나타내는 문수보살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장은 유학승으로서 귀국하여 大國統이 되어 國師의 효시가 되고, 승려의 모든 규범을 위임받아 주관하고, 황룡사 9층탑을 세우는 등 당대에 불법을 크게 편 공적이 있다. 그런데 我相에 빠진 자장의 최후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는 자장의 만년 행적을 비판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자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뜻이다. 자장은 대국통이 되어 모든 규범을 맡아서 주관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 설화에서 '누구도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한 대목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율사로서 초심을 잃고 만년에 諸法無我라는 法印을 놓친 자장을 폄하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덕율사 자장을 꾸짖는 의미보다는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아상의 집착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에서 지어낸 설화라고 생각된다.

이 설화의 구조를 보면 문수와 자장의 만남은 몇 단계로 나누어 설정된다. 자장이 문수보살을 만난 장소는 '북대(중국) – 명주(수다사) – 대송정 – 갈반지'로 바뀌며 점층적 구조를 갖는다. 중국 북대에서 만났던 문수보살은 명주 수다사에서 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꿈에 나타나 대송정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 그 후 대송정에서 만났을 때 불법의 요체에 대해서 물으니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갈반지에서 만날 것을 다시 약속한다. 대송정에서 불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갈반지에서 그 요체를 가르쳐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복선이다. 대송정에서 불법의 요체가 '我相'이라고 직접 말해줄 수 있으나 말하지 않고 뒷날 我相의 실체를 체험적으로 실감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자장율사는 대국통으로서 위엄을 내세우고 자기의 수행만을 위하는 소승적 태도를 보였다. 佛法에서 말하는 진리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 또는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민이나 나약한 병약자 또는 하찮은 미물 같은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자비심을 실천하라는 깨우침이다. 아상에 젖어 있는 주체자에게 문수보살이 던지는 마지막 한 마디는 바로 불교 가르침의 실상을 놓치기 쉬운 수도자들에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내리는 한방의 매서운 '할'이다.

이와 같은 설화의 구조는 불교의 가르침인 佛法을 지나치게 높이고 아득한 데서만 구하고자하는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비속한 인물 형상을 등장시킨 것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여러 불교설화에는 숭고한 존재가 비속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을 두 종류로 갈라 정의하는 사회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귀족 불교의식에 대항하는 일연의 민중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21]

문수보살과 관련되는 영험담의 구조는 trickster 구조를 갖는다. trickster의 사전적 의미는 '사기꾼・책략가・요술쟁이' 등으로 해석되는데 원시민족의 신화에서 주술 등으로 질서를 문란 시키는 신화적 형상의 뜻이 있다. 신화학에서는 '사술을 사용하는 신화적 인물'을 가리킨다. 그는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 즉 매개자로 활동하는 성격을 갖는다.[22] 문수보살 영험담에서 문수보살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변신하여 나타나 서사구조에서 주체자를 일깨워 주고 주체자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다른 보살들이 기도를 하면 직접 모습을 나타내어 영험을 주는 것과 대비 된다. 그렇다면 문수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며 변신의 원리는 무엇인가?

문수보살이 변신하는 모습은 승려・노인・동자로 나타난다.

먼저, 승려의 형상으로 나타난 경우의 보기다. 자장율사가 처음 중국 오대산에서 만난 문수보살은 승려의 모습이다. 자장율사에게 4句偈를 준 태화지 못가에 있던 문수석상, 문수석상이 준 게의 뜻을 풀이해준 노승(또는 神人), 노승이 문수보살이라고 일러준 태화지의 용은 모두 실체가 없는 化身이다.[23] 또 신문왕 때 외모가 초라한 거사(사문)가 광주리에 건어물을

21)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 『삼국유사 연구』 상(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26쪽.
22) 조희웅, 『신화학강요』(새문사. 1989), 132쪽.
23) 『삼국유사』 3, <대산오만진신>; 『삼국유사』 4, <자장정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담아 가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던 경흥국사 행차와 마주쳐 국사를 꾸짖어 깨닫게 한 거사(사문)도 문수의 화신이다. 다음 노인의 형상으로 나타난 경우의 보기다. 고승 연회대사가 문수고개에서 만난 밭 갈던 농부와 정암사에서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가지고 찾아온 초라한 老居士는 문수였다. 경순왕에게 나타난 문둥병 걸린 오승려도 문수의 화신이다. 끝으로 동자로 출현하는 경우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세조의 병을 고쳐준 문수동자가 있다.

① 세조가 피부병이 나서 문수보살이 머물러 계신다는 오대산 상원사로 기도하러 갔다.
② 때는 여름이어서 땀을 식히려고 계곡에서 옷을 벗고 미역을 감기로 했다.
③ 이때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 주겠다며 다가왔다.
④ 세조는 종기가 난 몸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임금의 등을 밀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했다.
⑤ 동자승은 "임금님도 문수보살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⑥ 뒤 돌아 보니 동자승은 온데 간데 없고 몸에 난 종기도 씻은 듯이 나았다.
⑦ 세조는 상원사에 동자상을 조성하여 모시게 했다.

그밖에 오대산 진여원에는 문수보살이 매일 이른 아침에 36가지 형상으로 화신하여 나타나 보인다 하였다. 오대산은 1만의 관음진신, 1만의 지장보살, 1만의 대세지보살, 5백의 아라한, 1만의 문수가 나타나는 영산이다. 문수대성은 다섯 봉우리 가운데서도 중대에 머무르는데 매일 새벽이면 진여원 지금의 상원에 이르러 부처의 형상, 오색 원광, 청련화 모습 등 서른여섯 가지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덕대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이산에 이르러 전당을 세우고 문수대성의 상을 만들어 봉안하였다.[24]

24) 『삼국유사』 3, <명주오대산보질주태자전기>.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문수보살이 노인・노승・동자로 출현하는 현상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먼저 노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노인이 갖는 의미에서 상징적 의미를 추론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인생을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지혜를 축적한 인물이다. 그래서 설화에 등장하는 노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집단의 지도자이거나 초월적 능력을 가진 도사나 조력자가 된다.[25] 이 때 노인의 모습은 대체로 늙고 남루한 차림의 걸인이나 농부 등 하층민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하층민으로 묘사하는 구조는 주체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닌 상황과 대비시켜 전하려는 의미를 극대화 하려는 구성이다. 권위 의식과 오만함의 我相에 쉽게 빠지는 인간의 성품을 경계하는 諸法無我의 교훈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편 동자로 출현하는 현상도 노인으로 출현하는 구조와 동일하다. 노인이 주는 상징적 의미와 동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출현인물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동자'라는 언어는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언어학적 기호의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天眞無垢－本源'을 뜻하며, 불교적으로는 '諸法無我－當體'를 상징한다. 불교설화에서 동자로 출현하는 의미는 본성의 회복, 진리의 당체로 읽힌다. 동자는 보살이고 보살은 부처고 부처는 진리이므로 동자는 진리 그 당체가 된다.[26]

그렇다면 문수보살이 노인이나 동자로 출현하는 변신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 원리는 삼신불 사상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잡아함경』에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청정한 진리의 몸" 이라 하였는데, 진리(부처)가 구현되는 방법은 三身佛(法身佛 報身佛 化身佛)의 방편이 있다.[27]

『금광명최승왕경』에는 "자유자재의 힘으로 하여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25) 정신분석학에서 노인의 이미지는 지식 인식 숙고 지혜 영리함 직관 호의 협조로 제시한다.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민담에 나타난 정신 현상에 관하여」, 『원형과 무의식』(솔출판사, 2002), 293쪽.

26)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5(실천민속학회, 2010), 186쪽.

27) 김용덕, 『우리불교우리문화』(밀알, 2005), 74~77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행위와 중생의 경계를 모두 가려보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를 놓치지도 않고 환경에 맞게 때에 맞게 행위에 맞게 설교에 맞게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화신이라고 한다."하였다. 화신불은 중생을 깨우치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법신불로서 진리의 당체인 부처는 보신불인 문수보살로 형상화되고 다시 화신불인 동자로 출현하는 단계를 밟는다. 누추한 모습의 노인이나 어린 동자의 출현을 통해 아상의 틀을 깨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극적 반전을 가져온다.

이상 문수보살 영험설화에서 문수보살이 노승이나 거사, 허름한 농부나 노인, 어린 동자로 출현하는 사례를 들어서 설화가 주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문수보살이 출현하는 영험담의 구조는 trickster의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데 좋은 구조다. 문수보살 영험설화에서 문수보살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변신하여 나타나서 진면목을 일깨워 주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문수보살의 변신인 노인은 권위 의식과 오만함의 我相에 쉽게 빠지는 인간의 성품을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 동자는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보살의 화현으로 본성의 회복과 진리 그 자체로 읽힌다. 문수보살 설화는 내용상으로 수행승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위치를 잃지 말라는 경책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문수보살은 천한 신분의 농사꾼이나 초라한 노승, 또는 어리석어 보이는 동자로 출현하여 깨달음의 진폭을 크게 하고 충격을 주는 trickster의 구조를 갖는다.

3. 중국 설화의 영향관계

앞에서 분석한 설화들은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설화는 문수보살 신앙을 믿었던 승려와 신도들이 문수보살의 지혜와 행원이라는 성격을 담아서 지어낸 설화다. 그런데 문수보살 영험설화를 보면 중국의 설화도 우리의 설화와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있다. 중국의 영험설화가 우리의 설화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변이형으로 전승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가 유사한 점이 관심을 끈다. 문수보살 신앙이 중국을 통해서 전래했고, 승려들의 중국 유학이 성행했으며, 경전과 『문수성행록』 같은 문헌을 통한 문화 접촉이 활발했을 것이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문수보살 영험 설화도 전래하여 우리 설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한 설화가 다른 설화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만큼 그 이식과 변이에 대해 확정적 근거를 댈 수는 없으나 내용과 구조가 유사한 설화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접변과 변동의 원리를 가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중국의 문수보살 관련설화와 우리나라 문수보살 설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 화소는 문수보살의 화신과 기도공덕이다. 기도공덕은 일반 영험설화에서도 흔히 있으므로 화신 설화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28]

<병든 승려로 나타난 문수보살>

① 중국 제나라 때 명욱이라는 승려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신 줄 알고 찾아 다녔다.

② 하루는 어떤 승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3일 동안 동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쓰러져 가는 암자에서 묵게 되었다.

③ 명욱은 암자의 승려들이 누추하고 행색도 변변치 못하다고 업신여기며 하룻밤 묵었다.

④ 한 밤중에 동행하던 승려가 병이 나서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났다.

⑤ 명욱은 악취 나는 승려와 함께 길을 가기 싫어서 남겨두고 혼자 떠났다.

⑥ 그때 종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암자와 중병 걸린 승려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⑦ 그제야 병든 승려가 문수보살의 현신임을 깨닫고 살던 절로 되돌아

28)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설화는 정념, 『문수기도공덕』(민족사, 2002)에 실려 있는 설화에서 선정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오니 은사가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허물 두 가지를 말했다.

⑧ 너는 두 가지 허물이 있다. 하나는 외모로 판단하여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병든 승려를 간호하지 않고 버린 것이다.

⑨ 명욱은 여생을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았다.

<도율선사가 만난 문수보살>

① 당나라 때 도율선사는 제자백가와 경율론 삼장에 통달하여 천신들이 항상 옹위하고 다녔다.

② 선사가 오대산 중대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천신들 가운데 동자가 있어서 누구냐고 물었다.

③ 동자는 체석천의 명을 받고 오대산에서 수행 중인데 선사가 여기 계시므로 모시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④ 선사가 동자에게 물었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라는데 골짜기마다 초목이 우거져 중생이 머무는 곳과 다르지 않으니 문수보살이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있는가?"

⑤ 동자가 대답했다. "대성인의 경계를 범부나 2승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범부요 승려는 2승이라 분별 있는 생각으로는 不可思義한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⑥ 이렇게 말하고 동자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수동자의 가르침을 받은 여혜경>

① 송나라 때 태위 벼슬에 있던 여혜경은 유불도에 통달한 사람인데 莊子를 해석하고 있을 무렵이다.

② 지방을 순시하던 중 오대산 중대에서 貝葉經을 든 동자를 만났다.

③ 동자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 "문수보살에게 화엄경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고 대답했다.

④ 동자는 "부처님의 뜻은 예전에 잘 해석한 것이 있는데 요새 새로 해석한 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大道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⑤ 여혜경은 어린 동자가 감히 대학자를 비방하는 것에 기분이 상해서 동자를 나무랐다.

⑥ 동자는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문수보살의 세계인데 어찌 범부의 망상으로 생각하느냐?"고 대답했다.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⑦ 그제야 깨닫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고개를 드니 동자는 문수보살로 변하여 금사자를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위의 설화들은 일체가 진여이므로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법요를 일깨워주는 설화들이다. 마치 자장율사가 정암사에서 만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박대하는 분별심으로 문수보살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과 같은 유형이다. 또 연회대사가 밭가는 농부와 빨래터의 노파를 분별심으로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설화도 중국의 이러한 유형 설화가 변이형으로 수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수보살이 승려나 동자로 화현하는 모티프나 동자가 문수보살로 변하여 사자를 타고 가는 모티프도 중국 설화의 화소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에 전승하고 있는 문수보살 영험설화에서 차용되고 있는 trickster의 구조가 이미 중국설화에 차용되고 있는 점에서 동일 기법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설화들은 문수보살 영험설화의 특징인 문수보살이 화신하여 초라한 행색의 승려나 노인 또는 동자로 화현하는 모티프를 보이는 화신 설화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문수보살의 화신인 한산이야기, 보시한 공덕으로 문수보살을 만난 이야기, 간절한 기도로 문수보살을 만난 요휘대사 이야기, 신통을 보인 삼매할머니 이야기 등 여러 영험설화에서 차용된 모티프가 우리나라 영험설화의 모티프와 닮은꼴인 현상은 우연이라기보다 교류를 통한 직간접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이 글은 문수보살 영험 도량과 영험 설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이 전승하고 있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문수보살 신앙의 한국적 전승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경전 속에 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려진 문수보살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완전히 갖춘 보살로서 대승불교 운동 초기에 반야부의 경전이 성립되던 때 지혜의 화신으로 형상화된 상징적인 보살의 성격을 갖는다. 문수보살은 방편으로 출현한 보살이므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모습을 나타난다. 사자를 타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용맹과 지혜를 상징하며, 使者인 다섯 동자는 문수의 분신으로서 모두가 문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수보살은 상투를 가진 동자형으로 조성되거나 설화에서도 동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경전에서 문수보살은 오대산에 머물며 설법하고 있다고 하므로 조상들은 오대산 등 이 땅에 문수보살이 머무른다는 문수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문수보살 신앙은 신라 때 자장율사에 의해 유입되었다. 문수신앙은 우리나라에도 중국처럼 오대산 신앙을 낳았고, 고려 때까지 문수회를 결성하는 등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전승되었다. 문수신앙은 『삼국유사』의 기록이나 지명, 영험도량과 영험설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수도량 연기 설화나 영험 설화를 통해서 본 문수보살 신앙의 특징은 지혜를 얻고 깨우친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문수기도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문수의 지혜와 영험을 빌어 개개인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시험을 앞둔 사람이 지혜를 얻어 시험에 통과하기를 기도하는 사례가 많다.

문수보살 영험 설화의 내용은 수행승으로서 본연의 자리를 잃지 말라는 경책과 당시 귀족 불교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영험담의 구조는 문수보살이 어린 동자나 노인의 형상으로 화신하여 나타나는 방편법을 쓰고 있다. 문수보살의 화신 원리는 三身佛(法身佛 報身佛 化身佛) 사상에 근거한다. 화신불은 중생을 깨우치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모습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법신불로서 진리의 당체인 부처는 보신불인 문수보살로 형상화되고 다시 화신불인 동자로 출현하는 단계를 밟는다. 문수보살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화신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혜와 깨우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다.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문수보살이 출현하는 영험담의 구조는 trickster의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는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데 좋은 구조다. 문수보살 영험설화에서 문수보살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변신하여 나타나서 진면목을 일깨워 주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누추한 모습의 노인이나 어린 동자의 출현을 통해 아상의 틀을 깨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극적 반전을 가져온다. 문수보살의 변신인 노인은 권위 의식과 오만함의 我相에 쉽게 빠지는 인간의 성품을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 동자는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보살의 화현으로 본성의 회복과 진리 그 자체로 읽힌다. 이 구조의 특징은 서사구조에서 주체자를 일깨워 주고 주체자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영험설화에서 문수보살이 동자나 승려 또는 초라한 행색으로 현신하는 형식은 중국의 설화에서도 발견된다. 문수보살 영험설화에서 차용되고 있는 trickster의 구조가 이미 중국설화에 차용되고 있는 점에서 동일 기법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수보살이 승려나 동자로 화현하는 모티프나 사자를 타고 가는 모티프도 이미 중국 설화의 화소에서 발견된다. 중국의 영험설화와 우리나라 영험설화의 모티프가 닮은꼴인 현상은 우연이라기보다 교류를 통한 직간접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문화가 교섭과 접변을 통해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다.

▌참고문헌

■ 경전 · 문헌자료

『묘법연화경』

『문수보살발원경』

『문수사리법보장다라니경』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문수보살반열반경』
『문수보살문보리경』
『묘법연화경』
『수능엄삼매경』
『유마경』
『잡아함경』
『화엄경』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논문・저서

김석보, 『울산유사』, 소문출판사, 1979.
김용덕, 『우리불교우리문화』, 밀알, 2005.
_____, 「미륵불신앙의 현장연구」, 『한국언어문화』 4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_____, 「불교설화에서 동자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5, 실천민속학회, 2010.
김창현, 『신돈과 그의 시대』, 푸른역사, 2006.
범해 찬, 김윤세 역, <자장법사>, 『동사열전』, 광제원, 1991.
염중섭, 「三國遺事 五臺山 관련기록의 내용분석과 의미」, 『한국사학연구』 101, 한국사학회, 2011.
_____, 「오대산사적기 제1조사전의 수정인식고찰」,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울주군, 『내고장의 정기』, 1983.
이고운・박설산, 『명산고찰따라』, 운주사, 1991.
이정수, 「불공삼장의 문수신앙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1994.
장준구, 「문수신앙과 돈황의 문수보살도 연구」, 『인문과학연구』 12, 대구카톨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정 념,『문수기도공덕』, 민족사, 2002.
정병조,『문수보살의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8.
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조동일,「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삼국유사 연구』상,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3.
조희웅,『신화학강요』, 새문사, 1989.
편집부,『문수기도집』, 정우서적, 2010.
한강지,「오대산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연구」, 동국대석사논문, 2006.
한국불교사전편찬위원회,『한국불교대사전』, 보련각, 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홍사성,『불교상식백과』, 불교시대사, 1999.
홍윤식,『삼국유사와한국고대만다라』, 원광대, 1985.

■ 번역 · 인터넷

C.G. 융 저작번역위원회,「민담에 나타난 정신 현상에 관하여」,『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2002.
www.banyasa.com
http//cafe.naver.com/junggak1
http://www.buddhistnews.net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A Study on the Worship for Manjusri and the Tradiional Miracle Folktales

Kim, Yong-duk*

This article is to inquire into the phenomenon of the Maňjuśri(文殊師利) Belief which is of great importance in Buddhism. It is expected that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ňjuśri Belief still passed down to the present generation.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data from a review of literature and field studies. It is intended to clarify Maňjuśri's character by studying Buddhist scripture. Maňjuśri is the symbolic bodhisattva who personified the virtue of Banya, Buddhist wisdom, which means 'having good luck and virtue' or 'perfect wisdom'. Maňjuśri becomes a bodhisattva temporarily to help Buddha eradicate all miseries of the life who are eventually destined to become Buddha in the afterlife.

The Maňjuśri Belief dates back to Shilla(新羅) dynasty when Jajang(慈藏)monk transmitted it from China to Korea, which is recorded in ≪Samguk Yusa≫(三國遺事) :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also mentioned in the traditional stories or the place names. The present transmission state can be detected at the sites of prayer and practice for Buddhists. The lay Buddhists taking part in the prayer expect their wishes to be realized by the miraculous power of Maňjuśri.

* Hanyang University

상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

The traditional stories of Maňjuśri showing the miraculous virtue help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ňjuśri belief. In these stories, Maňjuśri is personified as a child or an old man. The structure of the stories is that of trickster, which is characterized by awakening the main agent and changing the personality. The old man warns human kinds not to be carried away by the power of their position and their arrogance. The child is interpreted as the personified bodhisattva representing an ideal human. The child not only has the meaning of linguistic symbol, 'a young child', but also means innocence, recovery of human nature, and the truth itself.

〈Key-words〉 The Maňjuśri Belief, The traditional stories of Maňjuśri, Jajang monk, The structure of trickster, The Maňjuśri temple

* 논문투고일 : 2011. 8.31. 심사완료일 : 2011.11. 4. 게재확정일 : 2011.11.11.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11 11:13(KST)